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경로분석*

A Pathway of Career Maturity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외국어센터

선임연구원 채진영**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

Researcher : Chae, Jin-You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career maturit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ested a hypothetical structural equation model relating the variables to career maturity. The subjects were 2,771 fourth-grade children(1,494 boys and 1,277 girls) who participated in a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in 2004.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percentages, Pearson's correlations using SPSS 15.0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7.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proposed model, as revised,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illustrated that the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has only an indirect influence on children's career maturity via relationship with parents, children's self-image or academic work. In addition, relationship with parents, children's self-image, and academic work independently affected children's career maturity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Based on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se related variable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best pathway towards children's career maturity is in the order of socio-economic status, relationship with parents, children's self-image, and children's academic work..

▲주요어(Key Words) :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부모와의 관계(relationship with parents), 자아관(self-image), 학업(academic work)

I. 서론

과거에 비해 근래 아동은 정신적으로 성숙함을 보이며, 이에 따라 자신의 진로에 대해 인식하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최명숙, 2003).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은 주변의 어른이 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Magnuson & Starr, 2000), 자아관을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3~4학년 때 자신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5~6학년이 되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기 시작한다(나승일, 2001; 서우석·도경순, 2002). 진로발달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Super(1990)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관한 개념과 태도를 형성하는 시기는 바로 아동기이며, 진로 발달이 이른 시기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심층면접을 통해 49명의 4, 5학년 아동의 진로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Schultheiss 등(2005)은 이 시기의 아동들은 이미 자신이 희망하는 미래의 직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며,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중요성 및 자신의 직업을 통해 가족을 포함한 타인을 도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아동기는 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부정확한 정보나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다. 만일 이 시기에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태도를 형성한다면, 이후 청소년 범죄나 실업 등의 사회적 일탈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구승신·박성현,

* 제 6차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 주저자·교신저자 : 채진영 (E-mail : jychoe@snu.ac.kr)

2007). 따라서 초등학교 아동기에 긍정적인 진로성숙 발달을 이루는 것은 이후 직업선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로성숙은 자아 및 직업세계의 기초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 결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탐색하며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태도와 능력, 인식 등을 의미하며, 이는 직업 의식 성숙, 진로의식 성숙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구승신·박성현, 2007; King, 1989). 진로성숙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 과정으로 통하여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Super, 1957)이며, 자신의 욕구, 능력, 가치관, 흥미 등 내적요인과 가정환경, 부모의 영향, 직업 조건 등의 외적 요인간의 타협을 통해 발달한다(Ginzberg, 1951). 이렇게 진로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개인의 특성과 주변의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변인을 함께 고려해야 진로성숙 발달의 과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Shultheiss, 200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로성숙 발달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초등학교생의 진로성숙도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하여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변인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발달을 인간발달의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한 Bronfenbrenner(1989)는 아동의 행동과 정서, 그리고 가치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부모라 하였다. 아동은 주변 어른과의 상호작용 관계에 따라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해 이해하는 기술을 습득(Magnuson & Starr, 2000)하기 때문이다. 진로성숙은 심리사회학적 개념이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관련된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Super et al., 1996). Bascow와 Howe(1979)는 사회적 요인들 중에서 초등학교생 아동의 진로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부모로 보았다. 부모는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양식, 행동양식,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쳐서 부모가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Hartung et al., 2005).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고(신미자, 200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성숙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권소희 등, 2000; 이은정·장윤옥, 2008). 즉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월소득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초등학교생의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권기중, 1997; 안민영, 2001)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김원선, 1989)가 공존하고 있다. 초등학교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부모 소득의 영향에 대해서도 학자 간에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였다(안민영, 2001; Luzzo, 199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을 의미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초등학교생의 진로성

숙도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또 다른 부모 관련 변인으로 애착과 감독 등으로 나타나는 부모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Bowlby(1982)는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통한 아동의 심리적 안정은 자신을 둘러싼 외부에 대한 탐색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건강하고 안정된 애착관계를 바탕으로 부모가 보여주는 부모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연구 결과(Keller & Whiston, 2008; Rainey & Borders, 1997)를 토대로, 부모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부모가 보여주는 정서적 지지 및 관심은 초등학교생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변을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와 같이 부모와의 애착이 긍정적이고 부모의 감독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초등학교생의 진로성숙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하므로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 관련 변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을 간과할 수 없다. Super(1957)는 출생에서 14세까지의 아동은 가정과 학교에서 중요한 타인에 대해 동일시를 함으로써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고 하였고, Gottfredson(1981)은 아동기 때부터 형성되는 진로에 대한 개인의 포부는 자아관을 실현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하였다. 즉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자아관은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통해 긍정적으로 발달하며(Heaven & Goldstein, 2001), 자아개념의 발달과 함께 성숙하는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구승신·박성현, 2007; Super, 1990). 그러므로 부모와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을 높여 주고, 이는 다시 자신을 둘러싼 주변을 긍정적으로 탐색하며 자신의 미래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의식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아동이 지니는 자아관과 진로성숙도 간에 상관관계는 있으나 자아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약하다고 보고한 연구(이현림·주문자, 2007)도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자아관의 영향에 관해서 학자 간에 일치하지 않는 의견이 공존하므로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권기중(1997)은 아동이 지니는 높은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은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즉 자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학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업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이은정·장윤옥, 2008)에 의하면, 중학생이 인식하는 자신의 학업수준은 진로성숙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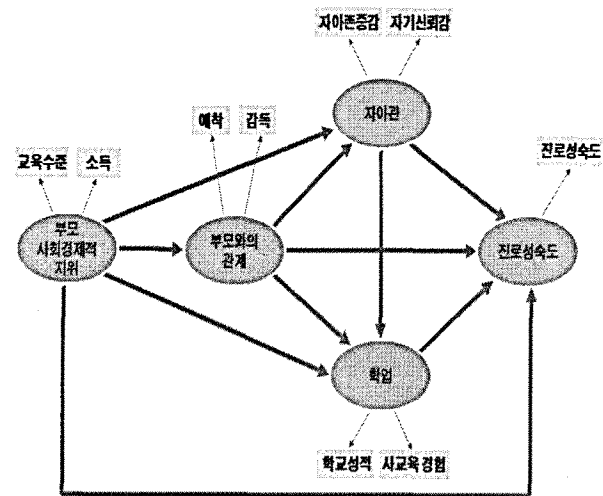
탕으로 아동이 형성한 자아관은 학업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와 관련된 변인과 아동의 학업성취에 관해서는 부모의 학력과 직업, 소득 등을 의미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경근, 2000)와 그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연구결과(김현주·이병훈, 2005)가 공존하는 등 학자에 따라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임세희(2007)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애착으로 나타나는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학업성취의 관계를 부모와의 관계가 매개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도 부모-자녀의 관계가 좋으면 아동의 학업성취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고 추측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초등학생의 학업관련 변인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외 연구는 양적으로 매우 미흡하며, 학업을 중시하는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와의 관계 등의 부모와 관련된 변인에 영향을 받은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자신의 학업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개인의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것은 이러한 내적·외적요인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님을 의미한다(박효희·성태제, 2008). 초기 청소년시기의 진로성숙도를 촉진시키는 요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이후 진로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er, 1990). 따라서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성장해 가며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의 아동에게 직업에 대한 정보와 직업선택에 관련된 교육을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아동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여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진로성숙과 관련이 있는 인지발달, 심리사회성발달, 도덕성발달은 모두 아동기 때 두드러지게 발달하므로 아동이 지니는 진로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Nazli, 2007). Magnuson과 Starr(2000)는 아동기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인식이 성립되는 시기인 만큼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아동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자신의 진로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는 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서 초등학생의 진로

성숙도와 관련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청소년기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모 관련 변인, 자아 관련 변인, 학업 관련 변인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애정적 양육태도는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홍순욱·문명순, 2007)도 있듯이 부모와 아동 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한 관계 및 관심, 즉 부모와의 애착과 부모의 감독의 정도는 부모가 지니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 학업에 영향을 주어 결국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부모 관련 변인, 자아 관련 변인, 학업 관련 변인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구조방정식의 가설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관측변인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계 월소득을 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잠재변인을 생성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과 부모의 감독을 합하여 '부모와의 관계'라는, 자아 관련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을 합하여 '자아관'이라는, 학업 관련 변인인 학교성적과 사교육 경험을 합하여 '학업'이라는 잠재변인을 생성하였다. 이렇게 아동의 진로성숙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교육수준과 월소득)와 부모와의 관계(애착과 감독), 아동의 자아관(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과 학업(학교 성적과 사교육 경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영향의 경로를 탐색하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바탕으로 구축한 연구 가설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가설모형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종단연구를 목적으로 2004년도에 전국 초등학교 4학년생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의 방법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 2,8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1차년도 자료 가운데 결측응답이 있는 자료를 제외한 총 2,77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선택한 이유는 이 시기의 아동은 초기 청소년기에 있으면서 자신의 진로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나승일, 2001; 서우석·도경순, 2002; Schultheiss et al., 2005; Super, 1990).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1,494명(53.9%), 여학생이 1,277명(46.1%)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중졸 이하는 157명(5.7%), 고졸 1,198명(43.3%), 전문대졸 267명(9.5%), 대졸 972명(35.1%), 대학원 이상 177명(6.4%)이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는 188명

(6.8%), 고졸 1,692명(61.0%), 전문대졸 210명(7.6%), 대졸 641명(23.1%), 대학원 이상 40명(1.5%)이었다. 부모 월소득은 100만원 미만 194명(7.9%), 101~200만원 789명(28.5%), 201~300만원 883명(31.8%), 301~400만원 483명(17.5%), 401만원 이상 422명(15.2%)이었다. 2008년 기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376만원(통계청, 2008)인 것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본 연구대상 가운데 월 소득 300만원 이하인 가정이 전체 68.2%이므로 부모의 월소득수준은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2. 측정 도구

1) 진로성숙도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설문지 중 진로성숙도에 관한 7문항을 사용하였고 각 문항의 질문 내용은 <표 1>과 같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들은 부정적 또는 타율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였다. Chronbach의 α 계수는 .66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표 1> 측정도구 문항의 질문 내용

진로성숙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는 아직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의 적성 및 소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2. 나는 아직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직업의 종류, 성격 등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 3. 나는 현재, 직업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하고 싶은 직업이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 4. 나는 현재, 내가 갖고 싶은 장래 직업이 자주 바뀐다.♣ 5. 나는 현재, 장래 직업선택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6. 미래란 어차피 불확실한 것이므로 직업을 미리 선택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7. 나는 현재, 나의 장래 직업선택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부모와의 애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2.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3.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5.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6.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부모의 감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2.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3.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4.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자아 존중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자기 신뢰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는 내가 스스로 내린 결정에 자신이 있다. 2.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3.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고 있다.

♣ 역코딩

2) 부모 관련 변인

(1) 교육수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부모 대상 설문지 중 아버지(남자 보호자)와 어머니(여자 보호자)의 학력에 관한 2문항을 사용하였다. '무학'을 1점, '초등학교졸업'을 2점, '중학교졸업'을 3점, '고등학교졸업'을 4점, '전문대졸업'을 5점, '4년제대 졸업'을 6점, '대학원 석사'를 7점, '대학원 박사'를 8점으로 한 8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2) 월소득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부모 대상 설문지 중 가계 월소득에 관한 1문항을 사용하였다. 100만원 미만을 1점, 101만원~200만원을 2점으로 하는 것과 같이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901~1,000만원을 10점, 1,001만원 이상을 11점으로 하는 등 원래 개방형 질문방식이었던 것을 변환하여 코딩하였다.

(3) 애착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생 대상 설문지 중 부모와의 애착과 관련된 6문항을 사용하였고, 각 문항의 질문 내용은 <표 1>과 같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Chronbach의 α 계수는 .76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4) 감독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생 대상 설문지 중 부모의 감독과 관련된 4문항을 사용하였고, 각 문항의 질문 내용은 <표 1>과 같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감독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ronbach의 α 계수는 .80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3) 자아 관련 변인

(1) 자아존중감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생 대상 설문지 중 자기존중과 관련된 6문항을 사용하였고, 각 문항의 질문 내용은 <표 1>과 같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3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으며, Chronbach의 α 계수는 .74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2) 자기신뢰감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생 대상 설문지 중 자기신뢰에 관한 3문항을 사용하였고, 각 문항의 질문 내용은 <표 1>과 같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Chronbach의 α 계수는 .77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4) 학업 관련 변인

(1) 학교 성적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생 대상 설문지 중 국어, 영어, 수학, 사회영역, 과학영역, 음악, 미술, 체육, 도덕의 9과목과 관련하여 '학생의 지난 학기 성적은 반에서 어느 정도였습니까?'를 묻는 9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못하는 수준'을 1점, '매우 잘하는 수준'을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자신의 성적은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Chronbach의 α 계수는 .76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2) 사교육경험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생 대상 설문지 중 국어, 영어, 수학, 사회영역, 과학영역, 음악, 미술, 체육의 8과목과 관련하여 '학원, 과외 등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를 묻는 8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없다'를 1점, '있다'를 2점으로 나타나며, Chronbach의 α 계수는 .75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5.0과 Amos 7.0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초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각 변인의 상관관계와 영향은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는 구조방정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III. 결과 및 해석

우선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진로성숙도와 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감독,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신뢰감, 아동의 학교 성적 및 사교육 경험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아동이 지각하는 자신의 진로성숙도는 보통 이상이었고, 부모의 감독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또한 사교육 경험과 관련된 평균 점수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각 도구별 가능 점수 범위, 평균 및 표준편차

변 인	가 능 점 수 범 위	평 균	표 준 편 차
진로성숙도	7~35	24.04	2.32
부모와의 관계	애 착	6~30	22.44
	감 독	4~20	17.15
자아관	자아존중감	6~30	16.14
	자기신뢰감	3~15	10.41
학 업	학교 성적	9~45	30.51
	사교육 경험	8~16	11.68

<표 3>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부모의 교육수준	1.00								
2. 부모 월소득	.30**	1.00							
3. 부모와의 애착	.17**	.08**	1.00						
4. 부모의 감독	.15**	.05**	.50**	1.00					
5. 자아존중감	.09**	.03	.08**	.06**	1.00				
6. 자기신뢰감	.14**	.09**	.34**	.28**	.19**	1.00			
7. 학교 성적	.28**	.13**	.40**	.37**	.16**	.42**	1.00		
8. 사교육 경험	.13**	.11**	.12**	.11**	.06**	.13**	.25**	1.00	
9. 진로성숙도	.15**	.09**	.24**	.21**	.05*	.25**	.32**	.10**	1.00

* $p < .05$, ** $p < .01$

<표 4> 연구 가설 모형의 계수 추정치

계수 경로	B	β	S.E.	C.R.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부모와의 관계	.00	.28	.00	8.7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자아관	.00	.09	.00	2.29*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학 업	.00	.22	.00	6.2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진로성숙도	.00	.12	.00	2.42
부모와의 관계 → 자아관	.67	.54	.04	15.75***
부모와의 관계 → 학 업	.02	.34	.01	3.55***
부모와의 관계 → 진로성숙도	1.31	.28	.44	1.87**
자아관 → 학 업	.07	.39	.01	4.93***
자아관 → 진로성숙도	2.28	.26	.61	3.80*
학 업 → 진로성숙도	13.23	.55	3.76	3.52***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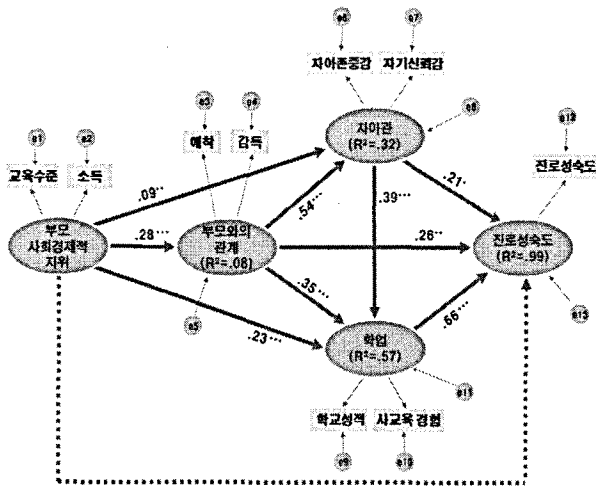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3>와 같이 부모 월소득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없었을 뿐, 그 외의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p < .05$, $p < .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력과 부모 월소득이 높으며,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부모의 관리감독이 더 많을수록 초등학교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초등학교 학생 자신의 자아존중과 자기신뢰가 높을수록, 학교 성적이 좋을수록,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수록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진로

성숙도와 부모 월소득($r = .09$, $p < .01$), 자아존중감($r = .05$, $p < .05$), 사교육 경험($r = .10$, $p < .01$)의 상관관계는 각각 유의한 수준이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축한 연구 가설모형 <그림 1>이 적합한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를 구한 결과, $\chi^2 = 44.628$, $df = 18$, AGFI = .991, GFI = .997, CFI = .992, NFI = .987, TLI = .984, RMSEA = .023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이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연구모형은 매우 적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가설모형의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경

<표 5> 연구 가설 모형의 계수 추정치

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284		.284
아동의 자아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091	.152	.243
	부모와의 관계	.536		.535
아동의 학업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232	.194	.426
	부모와의 관계	.345	.211	.556
	아동의 자아관	.393		.393
아동의 진로성숙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404	.404
	부모와의 관계	.259	.476	.735
	아동의 자아관	.209	.258	.467
	아동의 학업	.656		.656



<그림 2> 연구 수정모형

로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beta=.28, p<.001$)이었고,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자아관도 긍정적이었으며($\beta=.09, p<.01$), 학업도 잘 하고 있는 것($\beta=.22, p<.001$)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자아관이 높았으며 ($\beta=.54, p<.001$), 학업도 잘 하고 있었으며($\beta=.34, p<.001$), 진로성숙도 역시 높은 것($\beta=.26, p<.01$)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자아관이 긍정적일수록 학업을 잘 하고 있었으며($\beta=.39, p<.001$), 진로성숙도 역시 높은 것($\beta=.26, p<.05$)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은 학업수행을 잘 하고 있을수록 자신의 진로성숙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5, p<.001$). 그러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 가설모형이 보다 적합한 모형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외한 수정모형을 구축하였다. 우선 수정모형이 적합한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를

구한 결과, $\chi^2=47.678, df=19, AGFI=.991, GFI=.996, CFI=.992, NFI=.986, TLI=.984, RMSEA=.023$ 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 모형은 적합하다. 이 수정모형의 경로를 다시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었고($\beta=.28, p<.001$), 아동은 학업 또한 잘 수행하고 있는 것($\beta=.23, p<.001$)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자아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작았다($\beta=.093, p<.01$). 부모와의 애착과 부모의 감독으로 나타나는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자아관도 높았으며($\beta=.54, p<.001$), 학업도 잘 수행하고 있고($\beta=.35, p<.001$), 진로성숙도 또한 높았다($\beta=.26, p<.01$). 아동의 자아관이 긍정적일수록 자신은 학업을 잘 수행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beta=.39, p<.001$), 진로성숙도 역시 높았다($\beta=.21, p<.001$). 아동의 학업은 자신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정적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beta=.66, p<.001$), 아동 자신이 지각하는 학업 수행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진로성숙도 또한 높았다. 이와 같이 수정모형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와의 관계, 아동의 자아관과 학업은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진로성숙도 전체 분산의 9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4개의 독립변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부모와의 관계와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자아관 및 학업이 아동 자신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직접·간접·총효과를 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부모와의 관계는 .259의 정적인 직접효과를, .476의 정적인 간접효과를 미쳐 총효과는 .735로 변인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아동이 지각하는 자신의 학업은 진로성숙도에 .656의 총효과를 보여 부모와의 관계 다음으로 높은 총효과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자아관은 자신의 진로성숙도에 .259의 정적인 직접효과를, .258의 간접효과를 미

쳐 .467의 총효과를 보였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404의 정적인 총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아동이 지각하는 자신의 학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접효과까지를 포함한 총효과의 크기는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컸고, 그 다음 아동의 학업, 자아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각 변인들 간의 영향을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와의 관계와 자아관, 학업에 의해 각각 완전매개 됨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부모와의 관계, 아동의 자아관, 학업을 통하여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받은 부모와의 관계가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자아관과 학업에 의해 각각 부분매개 되었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받은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 아동의 자아관과 학업을 통하여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와의 관계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아동의 자아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업에 의해 부분매개 되었다. 다시 말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직접적인 영향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부모와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받은 아동의 자아관도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 아동의 학업을 통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지각하는 자신의 학업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와의 관계 및 아동의 자아관의 직간접적인 정적영향을 받아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연구원이 중단연구를 목적으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교 4학년 대상의 1차년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미칠 것으로 예상한 부모 관련 변인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부모의 교육수준, 소득)와 부모와의 관계(애착, 감독), 자아 관련 변인(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 학업 관련 변인(학교 성적, 사교육 경험) 등의 영향과 그 관계에 따른 영향의 경로를 파악하였다.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변인들 가운데 부모와의 관계가 미치는 총효

과가 가장 컸고, 학업, 자아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가질수록 아동의 진로성숙도는 발달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Blustein et al., 1991; Lee & Hughey, 2001)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부모와의 안정된 관계가 원동력이 되어 아동은 자신의 주변을 더욱 긍정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지적 특성의 학교 성적이 초등학교생의 진로성숙도를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고한 연구결과(구승신·박성현, 2007; 이주리, 2008)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학교 성적을 지닌 초등학교생은 자신의 진로를 계획함에 있어서도 매우 성숙한 자세를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부모와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높은 관심과 감독이 학업보다 초등학교생의 진로성숙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심지어는 취학 전 유아들도 경쟁적인 사회분위기에 따라 부모가 강조하는 우수한 학업성취를 위해 사회정서적인 측면보다는 인지적 발달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태도와 능력을 의미하는 진로성숙도에 가장 많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업이 아닌 부모와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부모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생의 자기신뢰감과 자아존중감 역시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성숙 과정이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고 보완해 가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는 Super(1990)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는 곧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변인을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성숙한 자세로 나타나 자신의 미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이 초등학교생의 진로성숙도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연구결과가 공존하는 가운데, 이 두 변인을 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잠재변인을 형성하여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비록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지만, 부모와의 관계, 아동의 자아관 및 학업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또한 아동의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의 영향의 경로를 분석하고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와의 관계, 아동의 자아관 및 학업을 동시에 고려하여 구축한 연구 가설모형은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모형을 통해 각 변인이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받은 부모와의 관계가 아동의 자아관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자아관의 영향을 받은 아동의 학업이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가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진로성숙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최적의 경로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는 긍정적이며,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자아관은 높으며, 아동의 자아관이 높을수록 아동은 학업을 잘 하고, 이러한 영향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아동은 자신의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보다 성숙된 인식과 태도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 관련 변인과 아동의 자아 관련 변인, 학업 관련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만,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애정적 양육태도는 관련이 있고(홍순옥·문명순, 2007), 부모-자녀 관계는 초등학생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며(지용근, 2004), 아동의 자아관이 자신의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구승신·박성현, 2007; Super, 1990) 및 아동의 학교 성적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매우 유의한 예측변인이라는 연구결과(구승신·박성현, 2007; 이주리, 2008)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축된 수정모형에 의하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진로성숙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와의 관계, 아동의 자아관과 학업의 경로를 통해 각 변인들이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에 의해 발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Zunker(1994)는 모든 개인은 '성공 기준'이라는 기제를 가지고 있어, 이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기제는 심지어 매우 어린 시기에서부터 관측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았을 때 개인이 발달시키는 진로성숙도는 아동기부터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본 연구가 실시된 것은 자신을 둘러싼 내·외적요인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진로에 대한 개념과 태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Super, 1990)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에게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하였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를 통하여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영향 등의 외적요인과 자신의 가치관 및 욕구 등의 내적요인이 어우러져 아동의 진로성숙발달이 이루어진다는 Ginzberg(1951)의 주장을 지지하였고, 개인의 진로성숙도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부모 관련 변인이 자아 관련 변인과 학업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동시에 파악하고 그 영향의 경로를 탐색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부모 관련 변인, 자아 관련 변인, 학업 관련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많

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의 아동이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자신의 진로성숙발달을 이루도록 제공할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아동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성숙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모 역시 많은 대화와 관심, 그리고 지지를 통하여 자녀의 진로에 대해 보다 성숙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부모 관련 변인이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됨에 따라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아동의 진로성숙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러한 학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애착관계와 진로성숙도를 살펴본 연구(박효희·성태제, 2008)에 의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부모와 더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므로,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성별의 차이까지 살펴본다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발달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 관련 변인도 부모와의 애착 또는 부모의 감독 뿐 아니라 진로 문제에 대한 부모와의 상의 여부, 부모의 관심 정도를 함께 파악한다면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한층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승신·박성현(2007). 초등학생의 직업성숙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5(1), 119-131.
- 권기중(1997). 초등학생의 가정배경과 진로의식간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소희·안현주·정혜원(2000). 청소년의 진로의식성숙과 일의 가치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 4, 28-41.
- 김경근(2000). 가족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 성취. *교육사회학*, 10(1), 21-40.
- 김원선(1989). *진로의식성숙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이병훈(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한국인구학*, 30(1), 125-148.
- 나승일(2001).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한국진로교육학회 편.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박효희·성태제(2008). 성별 진로성숙도 변화에 있어 부모-청소년 자녀 유대가 미치는 중단적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9(1), 117-142.

- 서우석 · 도경순(2002).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논리와 실제. **진로교육학회 학술발표: 학교현장에서의 진로교육 발표자료집**, 1-33.
- 신미자(2002). 자아정체감과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민영(2001).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 · 장윤옥(2008). 개인 · 가족 · 학교관련 변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355-376.
- 이주리(2008).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발달체적과 예측요인. **아동학회지**, **30(2)**, 43-55.
- 이현림 · 주문자(2007).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도가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2)**, 181-191.
- 임세희(2007). 장기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34**, 55-78.
- 지용근(2004). 부모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7(1)**, 106-122.
- 최명숙(2003). 초등학생의 개인적 · 가정적 변인과 진로의식 성숙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순옥 · 문명순(2007).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에 미치는 영향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과의 관계. **아동교육**, **16(2)**, 57-70.
- 통계청. <http://kostat.go.kr>
- Bascow, S. A. & Howe, K. G.(1979). Model influence on career choice of college student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7(3)**, 239-243.
-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9-50.
- Bowlby, J.(1982). *Attachment &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Y: Basic Books.
- Bronfenbrenner, U.(1989). Ecological Systems Theory. *Annals of Child Development*, **6**, 187-249.
- Ginzberg, E.(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L.(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80.
- Hartung, P. L., Porfeli, E. J., & Vondracek, F. W.(2005). Child vocational development: A review and re-conside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 385-419.
- Heaven, P. C. L., & Goldstein, M.(2001). Parental influences and mental health among some Australian youth: Cross-cultural analysi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53**, 170-075.
- Herr, E. L., Cramer, S. H., & Niles, S. G.(2004).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 span: Systematic approaches*. Boston: Allyn & Bacon.
- Keller, B. K. & Whiston, S. C.(2008). The role of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2)**, 198-217.
- King, S.(1989). Sex differences in a causal model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8**, 208-215.
- Lee, H. Y., & Hughey, K. F.(2001).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maturity of colleg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7(4)**, 279-293.
- Luzzo, D. A.(1993). Value of career decision-making attitudes and skil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194-198.
- Magnuson, C. S. & Starr, M. F.(2000). How early is too early to begin life career planning? The importance of the elementary school year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7(2)**, 89-101.
- Nazli, S.(2007). Career development in primary school children.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12(5)**, 446-462.
- Rainey, L. M., & Borders, L. D.(1997). Influential factors in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aspiration of early adolescent gir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2)**, 160-172.
- Schultheiss, D. E. P.(2003). A relational approach to career counseling: Theoretical integr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1**, 301-310.
- Schultheiss, D. E. P., Palma, T. V. & Manzi, A. J.(2003). Career Development in middle childhood: A qualitative inqui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3**, 246-262.
- Super, D. E.(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Y.: Harper and Brothers.
- Super, D. E.(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Brown, D. & Brooks, L.(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2nd ed.)(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 Super, D. E., Savickas, M. L., & Super, C. M.(1996). The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In Brown, D. & Brooks, L.(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3rd ed.)* (121-178). San Francisco: Jossey-Bass.
- Zunker, V. G.(1994).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4th ed.)*. Pacific Grove: Brooks/Cole Publishing Co.

접수 일 : 2010년 01월 05일

심사 일 : 2010년 01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0년 04월 05일